

우리나라 여성의 ICT 역량 : OECD 디지털 전환 측정 보고서를 중심으로

■ 송민이*

1. 개요

지능정보기술로 인해 2020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710만개가 사라지고 200만개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예측된다.¹⁾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 전망된다. 사라지는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으로 대체성이 높은 단순 사무 업무와 제조업 등으로, 현재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일자리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디지털 전환에 맞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ICT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OECD(2019)의 ‘디지털 전환 측정(Meas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인터넷 접근과 ICT활용, 관련 분야의 교육수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여성들이 디지털 전환기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연구실 인턴연구원, 043)531-4398, snl214@kisdi.re.kr

1) WEF(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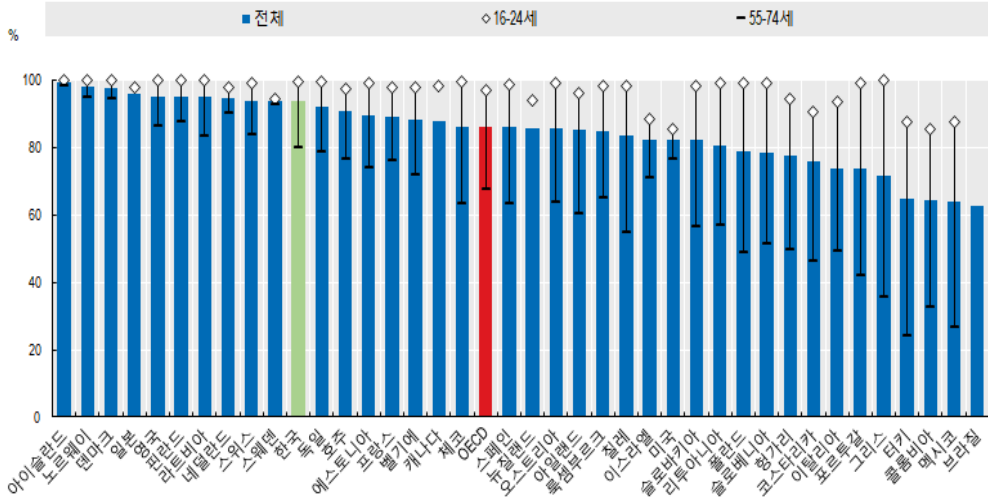
2. 주요 내용

(1) 여성 이용자의 인터넷 접근성

인터넷과 지능형 디바이스의 이용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얼마나 적응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다. 이러한 인터넷과 디바이스 이용 경향은 이용자의 세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전체 여성의 인터넷 이용률은 OECD 평균 86%이며 한국은 93.9%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16세 이상 24세 이하와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세대 간 차이를 보면, OECD의 평균 격차가 29.6%인데 반해 한국은 19.9%로 비교적 세대 간 격차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접근성을 측정한 것으로 실질적인 ICT활용에 세대 간 격차가 적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OECD PIAAC(국제성인역량조사)²⁾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여성의 연령대별 역량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났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2) OECD의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에서는 성인들의 언어능력, 수리력, 그리고 컴퓨터 기반 환경에서의 문제해결력을 평가. 이 능력들은 다양한 사회 환경 및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처리 역량으로 노동 시장, 교육 및 훈련과정, 사회생활 등에서 필수적인 요소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서 다양한 스킬들(읽기, 쓰기, 수리력, ICT, 문제해결력, 과업재량, 직장내 학습, 영향력, 협동, 자기관리, 손기술, 신체활동)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가에 대한 정보 수집. 아울러 스킬과 학력 불일치 여부, 노동시장과 사회적 성과 관련 변인들을 함께 조사함.

[그림 1] 성인 여성의 인터넷 이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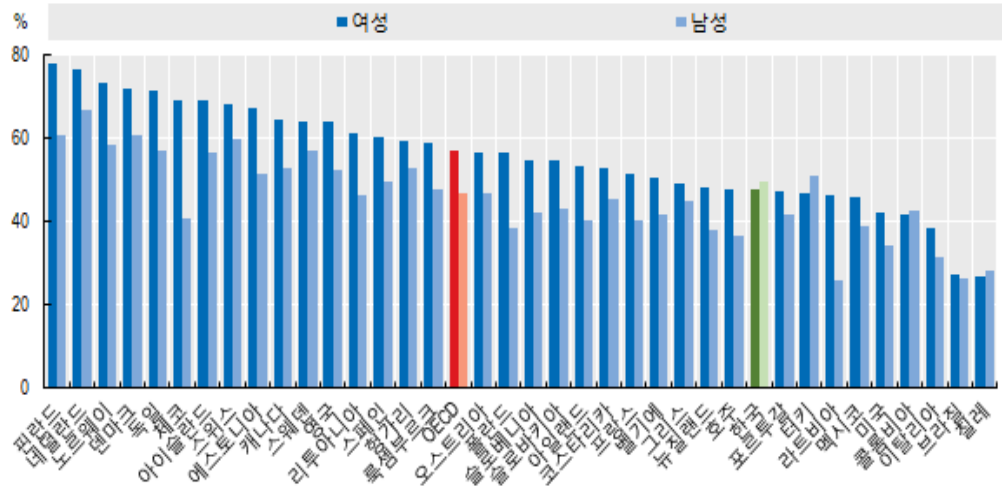


자료: OECD(2019)

(2) 일상에서의 ICT 활용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헬스케어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와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16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의 절반 이상은 온라인을 통해 건강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보다 20% 이상의 여성들이 건강정보를 얻을 때 온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일상에서 인터넷 활용에 좀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의 여성들은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이용이 47.9%로 나타나 OECD 평균인 57.1%와 작지 않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3년에 조사한 OECD PIAAC 결과와 유사하다. 조사 결과, 한국 여성의 일상에서 ICT 활동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접근



자료: OECD(2019)

<표 1> OECD PIAAC 여성의 ICT 활동 역량(일상)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덴마크	2.26	12	벨기에	1.97
2	체코	2.22	13	핀란드	1.94
3	미국	2.18	14	아일랜드	1.94
4	캐나다	2.17	15	독일	1.91
5	네덜란드	2.14	16	스페인	1.89
6	슬로바키아	2.13	17	폴란드	1.86
7	노르웨이	2.04	18	오스트리아	1.81
8	스웨덴	2.02	19	이탈리아	1.77
9	에스토니아	2.00	20	한국	1.57
10	프랑스	1.99	21	러시아	1.56
11	영국	1.98	22	일본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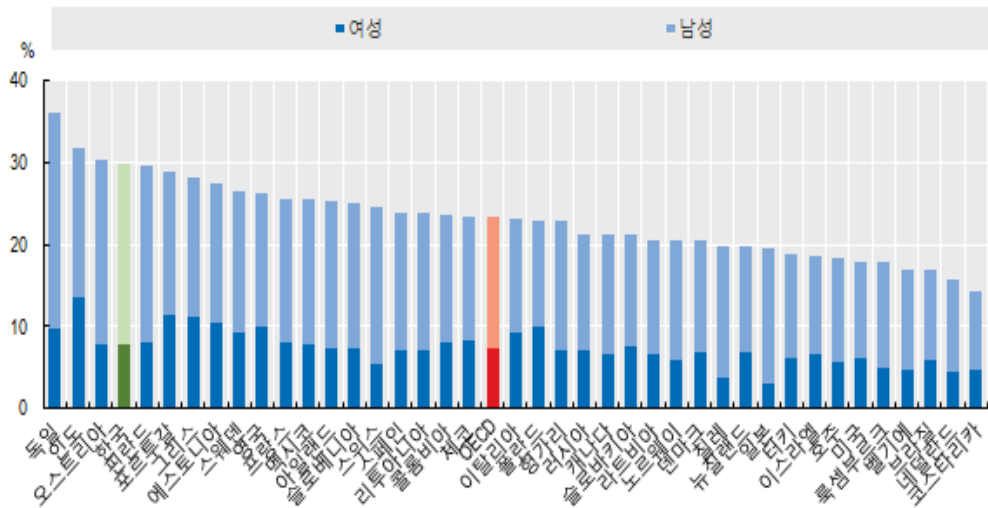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에서 재구성.

(3) 과학기술관련 전공에서 여성의 비중

OECD(2019)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꼽고 있다. [그림 3]은 모든 고등교육 전공 중 NSE(Natural Sciences, Engineering)&ICT 분야의 비중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ICT 관련 전공의 남녀 총 비율은 30%에 가까운 수치로, OECD 평균인 23.3%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비율은 7.9%로 OECD 평균인 7.6%와 근사한 수치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과학기술관련 전공분야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대표성을 띄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비중이 적은 현실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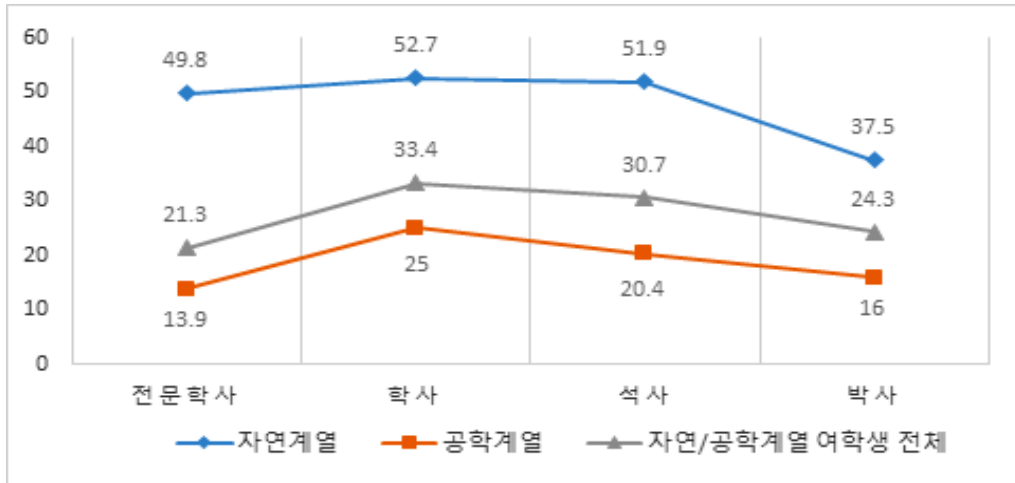
[그림 4]는 2017년도 자연·공학계열의 여성 신입생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과학기술전공에서 여성의 비중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고등교육단계에서의 NSE&ICT 전공 비중



자료: OECD(2019)

[그림 4] 자연·공학계열 학위과정별 입학생 중 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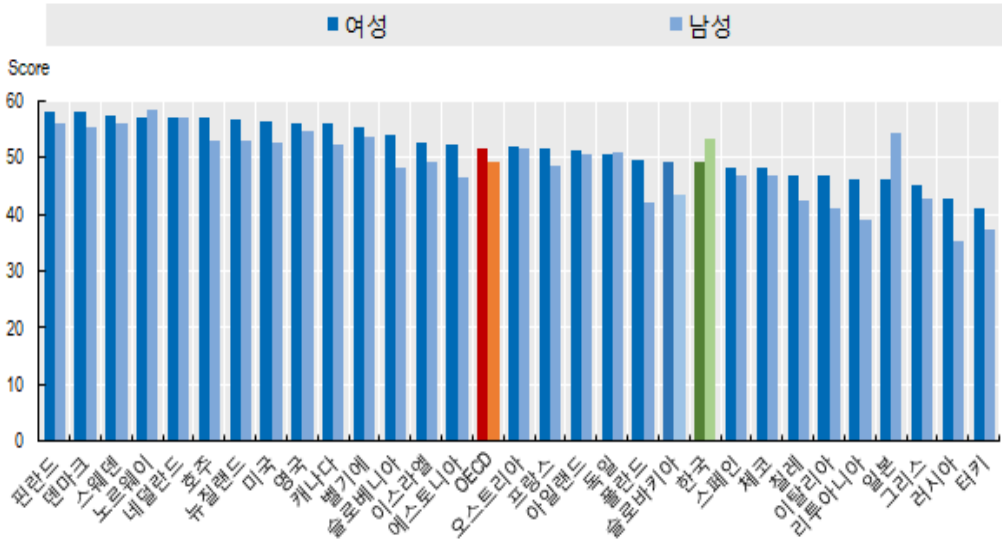


자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2018)

(4) 직장에서의 ICT 활용

OECD PIAAC에서는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 엑셀이나 워드,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 실시간 토론을 위한 ICT 활용 등 직장에서의 ICT 활용역량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ICT 활용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국과 일본 여성들의 점수가 남성보다 낮았다. [그림 2]를 살펴보면, 한국 여성의 점수(49.1)는 OECD 여성 평균(51.6)과 근사한 수치이지만 측정국가 중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OECD(2019)는 이를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마케팅 등의 직업이 ICT 활용도가 높은 것처럼 직종에 따라 역량활용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ICT 활용도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직장에서 ICT 활용



자료: OECD(2019)

3. 결 어

디지털 전환이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위기로 다가온 노동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일자리는 과학, 컴퓨터공학, 엔지니어링 분야로 현재 여성들의 비중이 크지 않은 분야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T 활용 역량이 국제 수준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ICT 관련 전공에서 여성의 비중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미래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역량 강화와 진로 개발이 필요하다.

WEF(2016)는 이러한 여성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방안으로 멘토링 프로그램과 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제도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현재 경기IT새일센터와 청주IT새일센터 두 곳이 IT분야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여성들이 전문화된 직종에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단기 직업훈련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단계에서 여성 인재의 진입이 필요하다. WISET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사업 등과 같이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 관련 분야 진출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여성들의 가장 큰 경력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내 성역할 문제 해소를 위한 일·가정 양립의 정책적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최윤정·정해숙·반가운·김상미(2016), 「취업 및 비취업 여성의 역량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2018), 「2017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
- WEF(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hallenge Insight Report(Jan. 2016).
- OECD(2019), “Meas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A Roadmap for the Futur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11992-en>.